

위기 부부 눈물 펑펑~ 웃음 빵빵~ 드립니다



김지원(왼쪽), 김수현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 내일 첫방

"이번에도 시청자들 마음을 '들었다 놔다' 할 자신이 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웃음)"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의 귀재' 박지은 작가의 신작 tvN '눈물의 여왕' (9일부터)에서 주연을 맡은 김수현은 7일 서울 영등포구 라마다서울신도림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섬세하고, 스마트하고, 조금은 짜질하기도 한 여러 매력 있는 캐릭터를 맡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매력을 재밌게 버무려서 시청자들을 울리고, 웃기고 해보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김수현은 드라마 '프로듀사', '별에서 온 그대'에 이어 다시 한번 박 작가의 남자 주인공으로 나선다.

그는 "배우로서 제가 맡은 캐릭터의 매력을 본인에게 묻혀가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 작가가님이 써주시는 캐릭터들은 묻힐 수 있는 색깔이 많다는 느낌이 든다"며 "그 색깔을 잘 소화해내면 제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눈물의 여왕'은 3년 차 부부가 아찔한 위기를 헤쳐 나가는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김수현은 시골 마을 용두리에서 나온 자란 '개

로코 드라마 귀재 박지은 작가 '개천용' 남편-'금수저' 아내 3년차 부부 위기 극복기 그려 "시청자 마음 들었다 놔다 할 것"

천용' 백현우를 연기한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퀴즈 그룹의 법무 이사로 일하고 있다.

백현우는 신입사원 시절 우연히 만난 퀴즈그룹 제벌 3세 흥해인(김지원)과 사랑에 빠진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딸과 연애결혼에 성공하며 '세기의 결혼'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결혼 생활은 상상했던 것과 괴리가 크다. 백현우는 살벌한 처가살이와 아내의 등쌀에 치여 매일 같이 눈물을 흘린다.

김수현은 "백현우는 결혼 생활에서 뜻밖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다시 사랑꾼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제목이 '눈물의 여왕'인 만큼

다양한 눈물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이라고 전했다.

백현우의 아내이자 '백화점의 여왕'이라 불리는 흥해인 역은 김지원이 맡았다.

김지원은 "보통 드라마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만난 남녀주인공이 점차 서로에게 감정을 키워가는 과정을 그리는데, '눈물의 여왕'은 처음부터 3년 차 부부로 시작한다"며 "연애 감정과는 다른 수많은 감정을 쌓아놓은 채 연기를 시작하는 게 속 재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부자 역을 맡게 됐는데, 성숙하고 여유로운 커리어우먼의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드라마 '불가살'의 장영우 감독, '빈센조', '작은 아씨들'의 김희원 감독이 의기투합했다.

김 감독은 "김수현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귀엽게 망가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준다"며 "촬영할 때마다 저도, 스태프들도 너무 즐거웠다"고 돌아봤다.

이어 "평일을 치열하게 산 사람에게 주말드라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그 책임감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재욱 배우와 열애 놀라게 해드려 죄송"

'에스파' 카리나, SNS에 자필 편지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사진)가 최근 알려진 배우 이재욱과의 교제 사실에 대해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팬들에게 사과했다.

카리나는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필 편지를 통해 "많이 놀랐을 마이(에스파 팬덤)들에게 조심스러운 마음이라 늦어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동안 저를 응원해준 마이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나는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속상해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 마음을 저도 너무 알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카리나와 이재욱은 지난달 27일 교제 중인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고, 양측의 소속사는 "서로 이제

알아가는 중"이라고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카리나는 "혹여나 다시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무릅쓰고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데뷔한 순간부터 저에게 가장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준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마이들이 상처받은 부분 앞으로 잘 메워나가고 싶다. 마이들에게 항상 진심이었고, 지금도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마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더 성숙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상업영화 35편 중 여성 감독은 1편 뿐

임순례 감독 '교섭' 유일...창작 인력·서사 성별 균형 퇴보 조짐

지난해 국내 극장가의 중심에 있었던 일정 규모 이상의 한국 상업영화 가운데 여성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은 단 한 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7일 발표한 '2023년 한국 영화 성인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봉한 고예산(순제작비 30억원 이상) 한국 상업영화 35편을 연출한 감독들 가운데 여성은 '교섭'의 임순례 감독 1명(2.7%)뿐이었다.

영진위는 2017년부터 해마다 한국 영화산업의 성평등 현황을 조사해 성인지 결산 보고서를 내고 있다. 지난해 한국 상업영화의 여성 감독 비율은 최저치였다.

여성 제작자(22명·23.9%), 프로듀서(13명·23.6%), 주연배우(9명·25.7%), 각본가(12명·21.8%)도 모두 30%에 못 미쳤다. 촬영감독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저예산 상업영화와 독립-예술영화를 포함한 한국 영화 183편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여성 감독은 49명(22.8%)으로 비율이 높아지긴 했다.

여성 제작자(77명·24.8%), 프로듀서(71명·31.0%), 주연배우(81명·40.7%), 각본가(67명·30.7%), 촬영감독(18명·8.1%)의 비율도 고예산 상업영화보다는 소폭 높았다.

한국 영화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력의 여성 비율이 저조한 현실은 한국 영화가 남성 중심적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영진위는 "여성 인력은 저예산 및 독립-예술영화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참여를 보였지만, 상업영화로의 진출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보



'교섭'

이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공개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오리지널 영화 7편을 봐도 여성 감독과 촬영감독은 한 명도 없었다. 각본가도 1명(16.7%)에 그쳤다. 다만 여성 제작자(4명·50.0%), 프로듀서(3명·37.5%), 주연배우(5명·83.3%)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계에서 과감한 실험을 시도하는 경향이 위축되면서 여성 인력에 돌아갈 기회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영진위는 우려했다.

영진위는 "한국 영화 창작 인력과 서사의 성별 균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퇴보하는 조짐을 보인다"며 "영화계의 전반적인 투자가 축소되고 제작이 위축되고 있어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마동석 '범죄도시 4' 다음달 개봉

마동석 주연의 인기 시리즈 '범죄도시 4'가 오는 4월 24일 개봉한다고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6일 밝혔다.

괴력의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사진)가 특수부대 용병 출신 백창기(김무열)의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소탕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윤계상, 손석구, 이준혁에 이어 '범죄도시' 네 번째 메인 빌런(악당)은 김무열이 맡았다. 김무열이 연기하는 백창기는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규모 도박장을 운영하는 인물

이다.

한국에서 더 큰 판을 짜는 IT 전재 CEO 장동철(이동휘)도 새로운 빌런으로 등장하며, 범죄도시 1·2편에서 활약한 장이수(박지환)도 이번 편에서 재합류했다.

'범죄도시 4'는 이 시리즈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열린 베를린국제영화제 스페셜 갈라 부문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다. 1~3편이 총 3000만 관객을 동원한 만큼 4편이 얼마나 많은 관객을 모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h4>대연건설</h4> <p>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p>	<h4>(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h4> <p>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인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p>	<h4>(주)대신수산유통</h4> <p>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p>	<h4>문화결혼상담소</h4>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p>
<h4>꽃게랑 약선반찬 전집</h4> <p>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p>	<h4>금남로 사주 카페</h4> <p>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p>	<h4>석당화랑</h4> <p>동구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고서화우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h4>면쟁이</h4> <p>동구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동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p>
<h4>박당화랑</h4> <p>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 062)222-6866</p>	<h4>필스제화</h4>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글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깔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p>	<h4>인철(仁喆)익스프레스</h4>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h4>무크 광주세정점</h4> <p>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예쁜 스타일의 가물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p>
<h4>도명 명리심리연구소</h4> <p>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p>	<h4>남도철학원</h4> <p>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적성,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h4>송가네 반찬</h4> <p>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p>	<h4>다흥치마 한정식 전문</h4> <p>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동어구이, 주물럭, 찜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p>
<h4>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h4> <p>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을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p>	<h4>파크랜드 광주 세정점</h4> <p>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2호 당신의 오늘을 위한 파크랜드. 가을, 겨울신상품 50%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251, 010-8660-1557</p>	<h4>초대화랑</h4> <p>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h2>光州日報</h2>